

章懷太子墓 禮賓圖中 —우리나라 使臣 服飾—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김 희 정

目 次	
I. 序 論	III. 禮賓圖中 우리나라 使臣의 服飾
II. 歷史的 背景	1. 冠帽
1. 章懷太子 墓의 造成 背景	2. 上衣
2. 三國과 주변國家의 情勢	3. 袴
3. 禮賓圖 使臣에 관한 논의	4. 靴
	IV. 結 論
	참고문헌

序 論

우리나라와 中國과의 관계는 古朝鮮 건국 이전부터, 時代가 내려 올수록, 전쟁이나 교역등을 통해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文化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들이 각종 文獻에는 나타나고 있으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唐과 우리나라와 관련된 자료의 하나로 章懷太子墓의 벽화 중 '禮賓圖'(혹은 客使圖)에 우리나라 使臣으로 인정되고 있는 人物이 있다. 이는 三國 혹은 統一新羅人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확한 나라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하고, 服飾에 관해서도 研究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고구려 벽화가 4~6C의 것이고, 7C부터의 회화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禮賓圖 벽화(이하 禮賓圖로 칭함)는 7C말이라는 연대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복식 추정에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예빈도 벽화 사진이 어느나라 사진인가를 가능한한 추정하여 봄으로써, 그 나라의 대외 관계와 당시 복식의 형태 및 변천을 고찰하는데 目的이 있다.

자료나 기록이 부족하여 外國자료에 주로 의존해

야하는 한계가 있다.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점 등은 보충하고 수정하고자 한다.

II. 歷史的 背景

1. 章懷太子 墓의 造成 背景

章懷太子의 이름은 李賢이며, 唐 高宗의 六男이고, 則天武后와의 사이에서는 次子로, 永徽 5年(654年)에 태어나 文明元年(684)에 사망하였다.¹⁾

원래는 長男이던 李弘이 皇太子였으나 上元 2年 夭折하였으므로 雍王이었던 李賢이 뒤를 이어 皇太子로 冊立되었다. 그러나 則天武后의 미움을 사서, 永隆元年(680)에 皇太子位가 폐위되고 巴州로 流配되었다가 文明元年(684)에 자살하였다. 사후 다시 雍王으로 추증되어 巴州의 化城縣에 묻혔다가 동생이던 李顯이 中宗으로 즉위한 후 神龍 2년에 乾陵의 동쪽으로 옮겨와 陪葬되었으며(706) 다음에 즉위한 睿宗이 景雲 2年 章懷太子로 추증하였다.

묘는 1971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비로소 벽화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묘의 넓이는 180×143cm이며, 남북이 길게 되어 있고, 單層台階²⁾의 구조이다. 50여조에 이르는 정교

1) 「舊唐書」, 卷86, 列傳 第36, 章懷太子傳.

2) 진순신(著), 이용찬(譯), (1988), 「中國古跡發掘記」, (서울:대원사), pp.430~431.

한 벽화가 묘실에 이르는 묘도에 그려져 있고, 그 중 동쪽벽에 禮賓圖가 있다. 벽화를 통해 당시 회화 수준, 생활상 및 복식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벽화의 제작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684년과 706년경에 다른 묘의 벽화와 함께 그려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禮賓圖는 동벽화면의 일부분으로 6인이 자연스런 자세로 서 있는데, 앞의 3인은 中國 관리이고, 그 뒤의 3인은 외국사신으로 앞에 2인, 뒤에 1인이 서 있다. 중국관리들은 인양자하는 듯 서로 마주보고 있고, 뒤의 3인은 禮賓 위한 듯 가슴 앞쪽으로 손을 모으고 이러한 인상을 띠고 서 있다.



〈도 1〉 禮賓圖(출처: 중화오천년문물집간)

2. 三國과 주변 國家의 情勢

당시 한반도는 高句麗·百濟·新羅 三國이 제각기 그 文化와 社會를 발전시키며 세력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받았으므로, 한반도 전체로 볼 때에는 같은 文化와 衣生活을 이루고 있었다. 7C 초 中國에는 隋를 이어 唐이라는 강력한 왕조가 들어서서 아시아 전체에 그 영향력을 미치며 국제적인 文化를 구성하였고, 따라서 三國은 각각 使臣과 유학생·승려 등을 唐에 보내어 그 文化를 배우며, 우호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唐 太宗은 고구려를 침략하고, 이에 맞서 고구려는 항쟁하여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내 情勢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쳐 羅濟동맹이 깨어지고 대신 고구려·백제가 연합하였으므로 신라는 당에 화병을 요청하여 마침내 660년에는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에는 唐을 한반도에서 몰아내 삼국을 통일했다.

고구려는 위치상 중국문화를 가장 먼저 수용하여 소화해낸 문화를 백제와 신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백제는 南朝와 倭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 삼국중 비교적 일찍 중국식 제도정비를 하였으나, 260년의 品冠服色制定이 그 예이다. 또 日本의 古代文化에 끼친 영향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두 唐制 服飾을 수용하지 않고 멸망하였다.

신라는 중국과의 교류가 늦었으나, 唐에 賜與冠服을 요청하여 唐俗을 받아들였으니 眞德女君 2년(649) 公服制度의 唐制度 수용이후 國俗의 의복과 함께 이중적 구조를 유지하였다.

고구려 멸망이후 唐은 만주등 옛 고구려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요동도독부를 설치하고 寶藏王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고 遺民들을 이주시켰으나, 고구려의 유민들은 끊임없는 反唐運動과 復興運動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고구려 遺將 大祚榮은 遺民과 靺鞨族을 모아 靺鞨을 세웠고(699), 713년에는 渤海라고 보냈다. 渤海는 고구려 후예임을 표방하고 나섰으니, 그 반대는 고구려를 진흥·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倭는 삼국, 특히 백제의 영향을 받아 7C부터 8C까지 영향하에 있었으나 신라의 삼국통일, 대륙정세 변화에 자극받아 唐문화 수용에 적극성을 보이다가 645년 大化改新을 통해 당왕 조법제를 모방한 律分制 완성, 文武天皇(701)의 大寶令에 의해서는 衣服制의 완성하였다. 즉 정세 변화는 服飾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예빈도 사신의 服飾을 알아보려 한다.

3. 禮賓圖 使臣에 대한 논의

章懷太子 墓의 벽화에 관하여 중국기록에서 화공이나 제작시기, 동기등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묘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벽화가, 대사 사망시(684) 雍王으로 추존되었으므로 그때 묘와 함께 그려졌던 것을 陪葬하면서 그대로 옮겨와 모사(706)했을 가능성과, 새로 그려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내용은 현세적인 主題를 다루었고, 인물 묘사가 상세하고 섬세한 점으로 보아 구체적인 대상을 그렸던 것 같다. 예빈도 주제는 장희대사 生存期인 654년부터 684년 사이에 내당할 사신들을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684년후 20여년이 흐른 뒤 706년이 새로 그려졌다고 가정한다면, 화공이 聯想하여 그렸거나, 陪葬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신에 관한 국적이나, 복식 형태에 대해 추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金元龍은 예빈도 사신복이 사마르칸트 사절복에 비해 순수전통형식의복으로 보고, 시기적으로 삼국 말기·통일신라초의 7C중엽경의 신라인이라 했다.³⁾ 金東旭도 양직공도의 백제국사복과 연결시켜 신라사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⁴⁾ 權寧弼은 벽화제작 연대를 711년으로 추정하고 역시 신라 사절⁵⁾이라고 인용하고 있는데, 711년은 景雲 2년 婦人 房氏와 합葬한 해로 합장하면서 벽화를 그려 넣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벽화제작 시기는 706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외국학자들 중에서도 신라인이라고 설명한 사람들이 있다.

진 순신은 구당서 신라조의 의복묘사와 시대를 근거로 신라사신의 가능성⁶⁾을 논하고 있으며, 穴澤 和光, 馬目順一은 신라고분 출토의 金製 鳥翼冠飾에 비교하여 '신라대사'⁷⁾라고 하였다. 杉本正年은 鳥羽를 부착한 緋冠과 복식의 특징들을 들어 신라 사절⁸⁾이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라사신으로 보는 견해는 상회태자 생존기간이 삼국통일과 통일신라기에 해당되며, 신라와 당과의 밀접했던 관계 및 唐書등에 나오는 신라복식에 대한 기록등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는 이미 眞德女王 3년(649) 중국 복제를 수용⁹⁾하여 중국복식을 착용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651년 日本에 간 사신이 당 복식

¹⁰⁾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예빈도 사신이 國俗 服飾을 한 신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 예빈도 장면이 장회태자의 황태자기간(675~680) 동안 업적을 묘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장회태자는 675년부터 監國¹¹⁾을 하였는데, 이 시기 唐書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사는 두가지가 있다. 즉 上元 2년 2월에 신라사신이 入朝하여 伏罪¹²⁾하고 있는데, 황태자 책립이 6월이므로 해당되지 않고, 677년에 寶藏王을 遼東都督 朝鮮郡王으로 봉하여 安東으로 귀환¹³⁾ 시킨 기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미 668년 고구려 멸망이후 보장왕등을 長安에 이치¹⁴⁾시키고 있으므로 당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당은 계속 요동 및 고구려 舊土를 통치하고자 하였으므로 일련의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하여 예빈도 사신을 고구려 유민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⁵⁾

세번째 설명으로는 渤海 사신으로 보는 것이다.

벽화 제작이 706년 경이므로 태자 생존 기간과는 너무 멀고, 사망시 제작된 벽화를 모사했거나, 화공이 생존기 업적을 철저히 고증하여 그리지 않았다면 706년경 入朝해 있던 사신을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당시 신라사신을 제외한 入朝해 있던 우리나라 사신으로는 震國人이 있다. 震國은 대조영이 699년 건국한 이래 당과 불리한 관계에 있다가 705년에 이르러서야 大門藝가 入唐하여 宿衛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통교가 이루어 졌다.¹⁶⁾ 713년 대문예가 귀국하고 그 해에

3) 金元龍,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사암 궁전벽화의 사절모」, 『考古美術』, 129, 130 서울: 한국미술사학회, 1976.

4) 김동욱, 「新羅의 服飾」, 신라문화선양회, 1979.

5) 조선일보, 1992년 9월 2일.

6) 앞글, (1988), p.438.

7) 穴澤和光·馬目順一, 「アフウシヤグ」都城址出土の壁畫にみ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18, 1976.

8) 杉本正年, 「東洋服飾史論攷」, (東京:文化出版局), 1984.

9)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記 眞德王條 '始服中朝衣冠'.

10) 「日本書紀」卷第25, 天萬豐日天皇, 白雉2年, '新羅貢調使知萬沙滄等, 着唐國服, 泊于滄紫朝庭惡恣移, 俗, 訶噴追還.

11) 「舊唐書」, 卷86 列傳 36, 章懷太子 賢 上元二年 六月 尋令監國.

12) 「舊唐書」, 卷5 本記 5 高宗 上元二年 二月 '新羅遣使入朝...伏罪'.

13) 「舊唐書」卷5 本記 5 高宗 儀鳳二年 二月, '工部尙書高藏援遼東都督 封朝鮮郡王 遣歸安東府'.

14) 김분경, 「당고구려 유민과 신라교민」, (서울: 일신사), 1986, p.8.

15) 중화오천년분물집간편집위원회(편), 「중화오천년 분물집간」복식上, 台北, 1977, p.146.

16) 「海東譯史」, 卷31 世紀 11 渤海 '中宗 神龍元年 祚榮遣子入侍 將加册立'.

震에서 渤海로 고쳤다.

말해 초기 풍속에 대해서는 727년 2대왕 武王이 일본에 보내는 국서 속에 '復高麗之舊居·有扶餘之遺俗'¹⁷⁾ 이라고 하였고, 唐書에도 '風俗與高麗及契丹'¹⁸⁾하므로 고구려 풍속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신이 우리나라 고유복식을 한 震國內지는 渤海人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끝으로 日本 사신으로 보는 의견도 있어, 王仁波는 '日本 제8차 遣唐使中 成員일 가능성이 있다.'¹⁹⁾고 하였으나 이에 관해, 雲翔은 복식에 관한 고기 복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²⁰⁾

이제까지 예빈도 사신의 국적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신라인이라는 짐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정세와 복식 등을 고려해 볼때 고구려 유민이나 진국(발해)사신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벽화에 대한 자료부족과 당시 복잡했던 우리나라의 정세 등으로 본 연구에서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차후 계속적인 연구와 유물발굴 등을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Ⅲ. 禮賓圖의 우리나라 使臣 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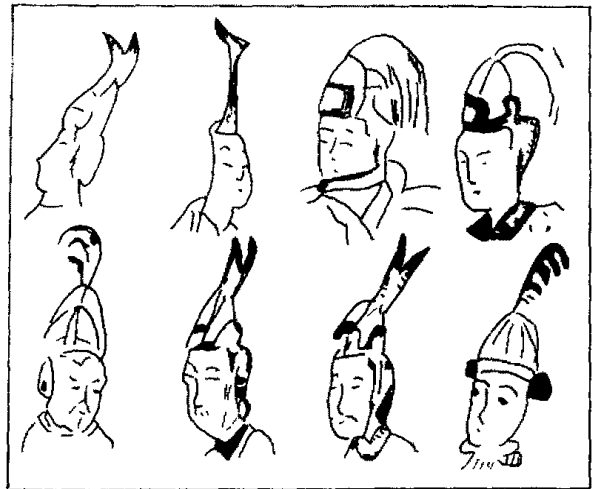
禮賓圖<도 1>의 인물에 관해 중국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唐의 관료로 보이는 3人是 唐鴻臚寺替禮官으로, 籠冠·白紗曲領中單·皂綠領·襪·標緋袍·白裳·大帶前垂紳·後垂綬·圍蔽膝·執笏·歧頭履를 착용하고 있는데, 「舊唐書」에 貞觀 4年(630)에 服飾改正이 이루어져 이에 따르면, 4,5품이상인 緋²¹⁾色을 입도록 한다 하였으며 關立本の 「凌烟閣功臣二十四人圖」에도 유사한 옷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初唐朝服²²⁾으로 생각된다. 맨머리에 翻領袍·白帶皂靴를 신은 인물은 그 외양이나 衣服으로 보아 당시 당에 많이 八朝해 있던 서역인인

것 같고, 마지막 사람은 皮裘帽·圓領袍·皮毛褲·外披灰大氅를 착용하여 北方民族²³⁾으로 생각된다. 5번째 서 있는 인물이 본 연구의 대상이므로, 冠帽·上衣·袴·靴로 나누어 고찰한다.

1. 冠帽

冠은 머리의 정수리부분에 얹혀 있으며 이마 부분은 博山形의 붉은 색장식이 붙어 있고, 그 뒤로 屋蓋같은 것의 흔적이 보인다. 뒷부분은 흰색으로 싸여 있고 두개의 깃털이 좌우 양옆에 冠안에서 밖으로 꽃혀 있다. 冠으로 부터 나온 넓은 백색 끈으로 턱밑에서 묶고 있는데 귀부분은 세로로 찢어져 귀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

鳥羽冠의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다양한 형태로 <도 2> 묘사되어 있다. 敦煌벽화 220호(642년), 335호(686년)의 冠帽형태가 사신 것과 유사²⁴⁾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 관모형태가 대개 예빈도 사신 冠帽형태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도 2> 高句麗冠帽(출처: 백제의 복식)

17) 『속일본기』, 卷 10.

18) 『舊唐書』 卷 199 列傳 149. 渤海靺鞨條.

19) 최무성, 『고구려·말해문화』 (서울: 집문당), 1985, p.218. 재인용.

20) 윗글(1985), "唐代 장화태자묘 사신도 제이인운 조선인" p.223.

21) 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輯委員會(편),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上, (台北), 1977, p.146.

22)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台北: 南天書局), 1981, p.184.

23) 앞글, 1977, p.146.

24) 朝鮮日報, 1992년 9월 2일.

사신의 冠帽 鳥羽의 羽毛가 直立되고 彎曲하지 않았기 때문에 日本使臣일 가능성이 크다²⁵⁾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시의 倭화 속의 다양한 鳥羽형태로 보아 재고의 여지가 있다.

日本 冠모의 鳥羽에 관한 기록은 推古天皇이 제정한 冠位 十二階(603)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관에 정원 초하루나 행사시 髻華라고 하는 것을 禮冠에 鳥尾 장식으로 꽂는다는 규정²⁶⁾을 두고 있는데 이 古冠制는 648년 폐지되고 蟬帽로 定하였다. 그 형태도 鳥羽冠과는 전혀 다르므로 그 형태면에서나 제도면에서 타당성이 없다. 이후 長安 3년(702) 拜謁하는 日本使臣은 進德冠²⁷⁾을 쓰고 있어 鳥羽冠이 아니므로 倭화가 706년에 그려졌다고 해도 부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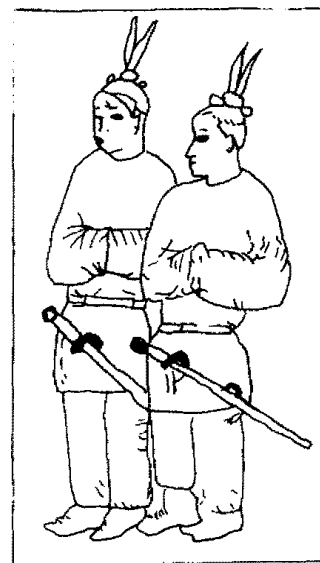
高句麗²⁸⁾에 대해 '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插二鳥羽'하여 그 존재를 알려 주고 있고 1979년 西安唐長安城道政坊인데에서 발견된 唐代 '都管七國六銀盒' 뚜껑의 1組 도안에 題榜이 高麗國이라고 쓰인 人物들은 두개의 鳥羽를 꽂고 있어²⁹⁾ 고고학적으로도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 <도 3>



<도 3> 都管七國六銀盒· (출처: 고구려·발해 문화)

1965년 우즈베크 공화국 사마르칸트시 교외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왕전 1호 西側 倭화가 있다. 7C말~8C초에 제작된 것으로 謁現하러 온 使臣들을 상례히 묘사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한 두명의 남자가 쓴 조우관은 북부형태

에 鳥羽가 꽂혀 있다. 이 부류 唐 주변에는 한반도 외에 조우를 묶는 종속이 존재하지 않았다.³⁰⁾ 하므로 우리나라 사립임은 틀림없다. 당시의 통일신라 일기라는 金 元龍의 견해와 신라에서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말해나 중국 서부에 이주한 한국인 집단인 사절일 수도 있다는 高柄翊³¹⁾의 주장도 있다. 그런데 전술했던 연대추정이 정확한 倭화벽화에(220호, 335호) 나타난 인물들의 쓰개와 옷은 예빈도 사진과 흡사하며, 북두에 조우를 꽂은 것이라면 사마르칸트 벽화는 좀 더 후기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도 4>



<도 4> 아프리카 왕전 벽화 (출처: 고구려·발해 문화)

2. 上衣

上衣의 형태는 부를 정도의 길이에 白色으로, 옷깃·단 등에 넓게 赤色 襷을 들렀다. 袖口가 넓고 右衽으로 깊숙이 여며졌으며, 허리에는 白帶를 들렀는데, 대의 끝부분이 소매 밑으로 보인다.

이 上衣는 梁 職貢圖의 百濟國使와도<도 5> 비슷하다. 百濟는 이미 古爾王 27년(280)에 衣帶色으로 上下를 구별하는 公服制度를 도입하였는데, 백제가

25) 崔茂藏, 「고구려·발해문화」, (서울: 집문당), 王仁波의 「從考古發看唐代 中日文化交流」 재인용, 1985.

26)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東京: 衣生活研究會會), pp.23~29, 1981.

27) 「舊唐書」東夷傳 日本條 “冠進德冠…身服紫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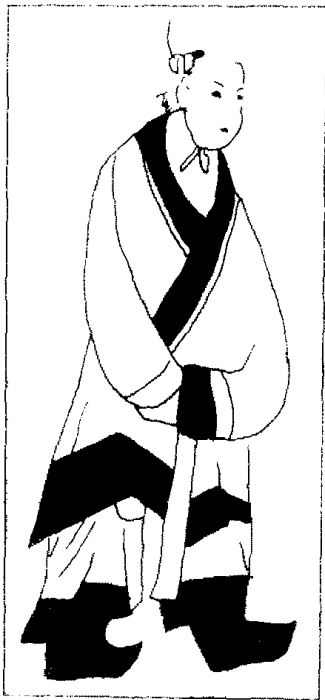
28) 「舊唐書」高麗條

29) 최무송, (1985), pp.221~222.

30)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東京: 文化出版局), 1984, p.317.

31) 조선일보, 1991.9월 5일.

고대 신라(新羅)의 衣冠(衣冠)은 百濟(百濟)에서 傳入(傳入)된 것으로 보인다. 『百濟書(百濟書)』에 百濟(百濟)의 衣冠(衣冠)은 高麗(高麗)의 衣冠(衣冠)과 同(同)하다고 되어 있다. 『百濟書(百濟書)』에 百濟(百濟)의 衣冠(衣冠)은 高麗(高麗)의 衣冠(衣冠)과 同(同)하다고 되어 있다. 『百濟書(百濟書)』에 百濟(百濟)의 衣冠(衣冠)은 高麗(高麗)의 衣冠(衣冠)과 同(同)하다고 되어 있다. 『百濟書(百濟書)』에 百濟(百濟)의 衣冠(衣冠)은 高麗(高麗)의 衣冠(衣冠)과 同(同)하다고 되어 있다.



〈도 5〉 梁職貢圖의 百濟國使 (출전: 백제의 복식)

袍와 長襦와의 차이는 길이에 의해 판단되어진다.

急就篇에 '長衣曰袍·下至足跗·短衣曰襦·自膝以上'이라 했으니 여기에 의하면, 양식공묘 사신의 옷은 부른이하므로 짧은 포이며, 예민도 사신의 옷은 長襦이다. 그러나 表衣라는 점, 명확하지 않은 길이때문인지 金東旭, 杉本正年 등은 포라고 규정짓기도 한다.

『百濟書(百濟書)』에 百濟(百濟)의 衣冠(衣冠)은 高麗(高麗)의 衣冠(衣冠)과 同(同)하다고 되어 있다. 『百濟書(百濟書)』에 百濟(百濟)의 衣冠(衣冠)은 高麗(高麗)의 衣冠(衣冠)과 同(同)하다고 되어 있다. 『百濟書(百濟書)』에 百濟(百濟)의 衣冠(衣冠)은 高麗(高麗)의 衣冠(衣冠)과 同(同)하다고 되어 있다. 『百濟書(百濟書)』에 百濟(百濟)의 衣冠(衣冠)은 高麗(高麗)의 衣冠(衣冠)과 同(同)하다고 되어 있다.

新羅의 국중에 대해 '衣服略與高麗百濟同'이라고 하여 삼국이 같은 복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하는 法興王(法興王) 때 六部의 복색으로 준바의 制(制)를 정하였으나 이식 그것은 夷俗의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때 까지도 夷俗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 중국복제 수용은 眞德女王(眞德女王) 3년(649)경으로 이후 중국복식을 착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민도 개국기간(684년, 706년)은 이미 당복을 입고 있던 시기이므로 신라 사신이 夷俗인 고유의 복을 착용한 것에 의문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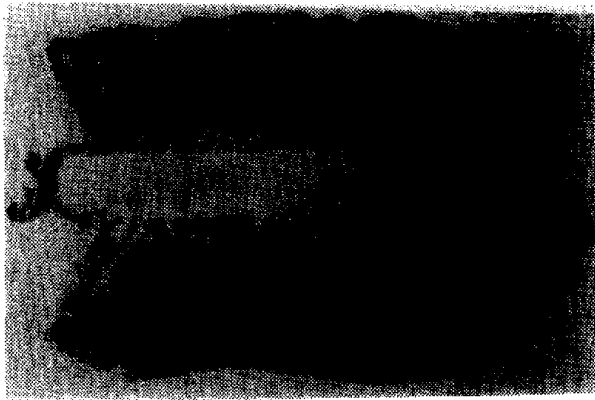
上衣 밑단에 보이는 좁은 짧은 주름은, 현재 이 주름에 관해 벽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단지 日本에 남아 있는 天壽國曼荼羅繡帳에 표현된 인물들이 입고 있다. 만다라수장은 622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예민도(도 11) 보다도 작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男子(男子)上衣 밑에 넓은 주름이 보이며 하의로는 바지를 입고, 다른 사람은 裳위에 짧은 좁은 주름으로 보이고 있다. (도 6)



〈도 6〉 天壽國曼荼羅繡帳부분 (출처: 백제의 복식)

32) 한국사연구회(편), 『고대 한중관계사의 연구』, (서울: 삼지연), p.1987.
 33) 김동욱, 『백제의 복식』, (서울: 백제문화개발연구소), 1985, p.62.
 34) 앞문, (1985), p.49.
 35) 『舊唐書』, 東夷傳 高麗條.
 36) 『舊唐書』, 東夷傳 新羅條.
 37) 『三國史記』卷第33 雜志第2 色服 新羅條.
 38) 『三國史記』卷第5 新羅本記 眞德王條 '始服中朝衣冠'

이 주름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는 허리에 두르는 주름잡은 어떤 것이 길으로 보이는 것이다. 正倉院에 보존되어 있는 腰褌<도 7>가 그것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도 7> 腰褌 (출전: 東洋服飾史論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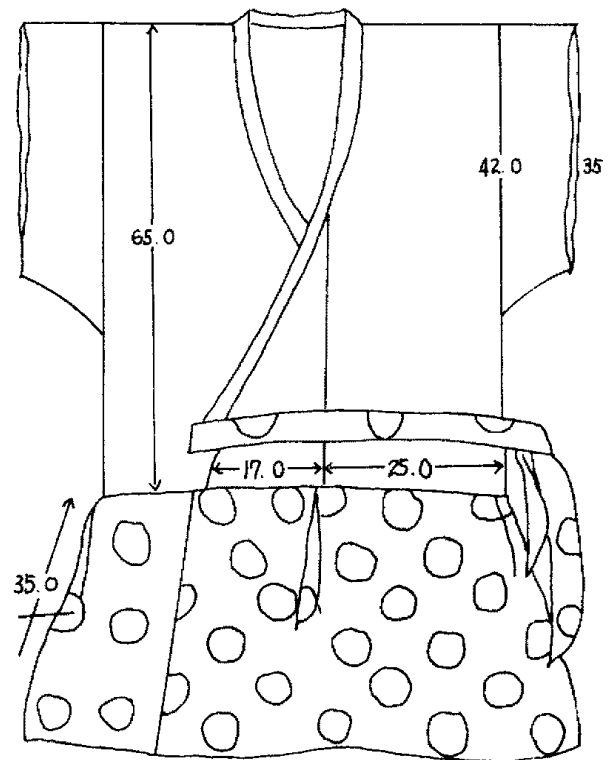
腰褌는 길이가 짧고, 양옆에서 묶도록 된 것인데 杉本正年은 이것이褶위에 입는表裳의 일종³⁹⁾이라 했는데, 여자가 착용했을 때, 만다라수장의 치마위에 짧게 보이는 주름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속에 입은 옷의 아랫단에 주름잡힌 단이 붙어 있어 이 주름이 내다보일 수도 있다.

日本 정창원에 판 천을 단에 붙인 半臂<도 8>가 남아 있는데, 아래 천에 주름을 잡았다면 예빈도의 주름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 唐 中期俑에서도 예빈도 사진 것과 같은 주름의 표현을 볼 수 있다 <도 9>. 이 俑은 曲領白中單·博袖衣白裳·似半臂衫式的襦襦大帶⁴⁰⁾ 등을 입었는데, 양당아래로 衣의 좁은 주름이 짧게 나온 것이 보이므로 만비의 경우보다도 더 확실한 실예가 된다.

세번째로는 裳이 짧아졌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다라수장에는 남자의 바지 위에 비교적 넓은 주름이 표현되어 있으며 남자의 裳에 관하여는 金春秋와 관련된 裙에 대한 기록이 「三國遺事」에 나오고 있는데⁴¹⁾ 이 고사의 진의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밍힐 정도의 길이가 긴 裳일 것이고, 고구려 벽화에서 舞踊塚 승려가 袍아래 입은 裳과 비슷할 것이다. <도 10> 이렇게



<도 8> 五倉院 半臂 (출처: 백제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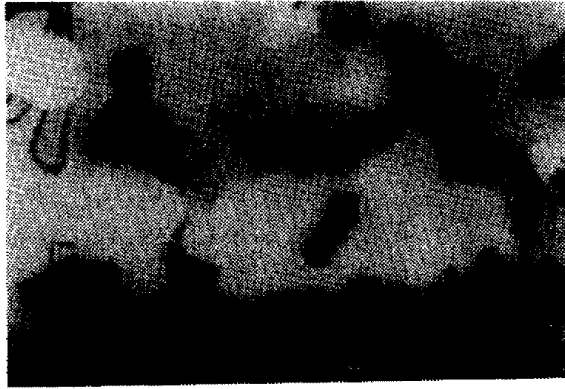
<도 9> 唐中期 俑 (출처: 중화오천년 문물)

39) 杉本正年, (1984) p.342.

40) 중화오천년문물, (1977) p.201.

41) 「三國遺事」太宗 春秋公條.

길게 입던 남자의裳이 만다라수장의 남자 주름처럼 짧아져 형식화 내지는 예복화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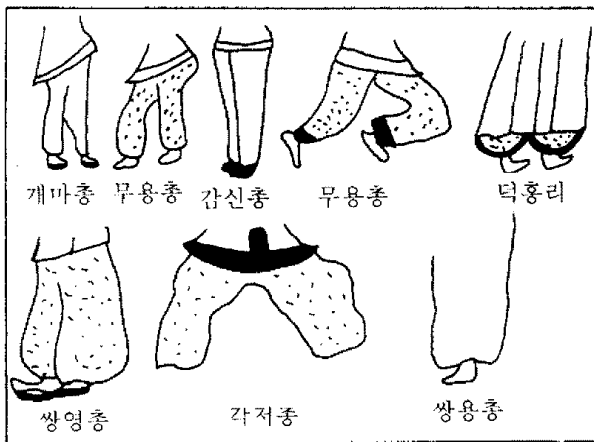
<도 10> 무용총 벽화 (출처: 고구려고분 벽화)

3. 袴

사신의 袴는 白色이고 길이는 발목 정도이며 폭이 裳처럼 넓고 大口袴로서 단에는 같은 色으로 襪이 가해져 있다. 양적공도의 袴에는 주황색袴에 이색선이 붙어 있고 통이 조금 좁을 뿐 예빈도의 袴와 같은 형태이다.

바지는 삼국시대의 남녀모두 착용하였는데, 폭이 넓은 것, 좁은 것, 바지부리에 이색선을 댄 부리를 묶지 않은 것, 부리를 묶은 것등 다양하다(도11).

袴의 단에 폭이 넓은 同色의 선이 가해진 점이나 寬厚한 것으로 미루어 양적공도에서처럼 예복용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 안에 기존 바지를 입고 다시 위에 의례용 길바지를 덧입어 日本의 上袴(表袴)와 비슷한 제도였으리라 추정⁴²⁾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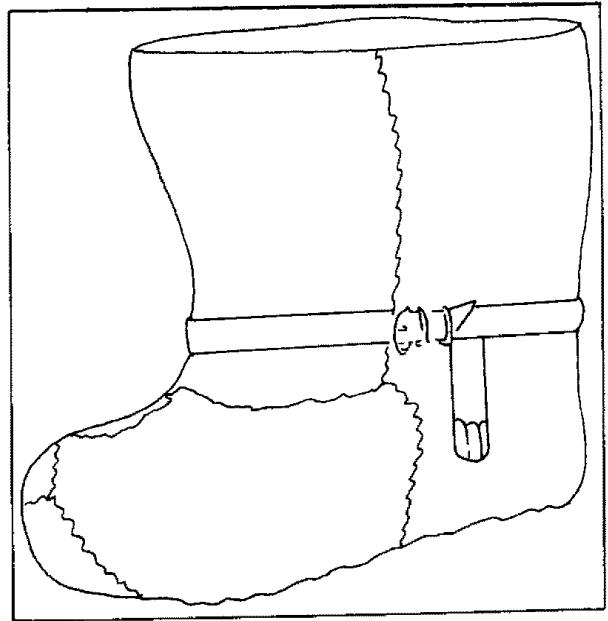


<도 11> 고구려 벽화 袴 (출처: 백제의 복식)

중국의 단령 속에 입은 고는 모두 넓고 단을 묶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신으로 갈 때는 넓은 고를 입고 바지단을 묶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4. 靴

사신의 靴는 발끝이 조금 올라가 있고 발등과 발목이 나뉘는 부분에 선이 있는 모양이 六合靴(도 12)와 거의 유사한데, 靴帶의 여부는 바지에 가려 확인 할 수가 없다.



<도 12> 六合靴 (출처: 歷世服飾圖說)

IV. 결 론

예빈도 사신의 옷은 冠帽·直領交衽의 長襦·布白帶·襪의 가식등 고유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大袖·大口袴·六合靴·주름등은 외국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禮賓圖가 그려진 시기는 장희태자(654~684)가 사망한 해(684)이거나 陪葬한(706) 해일 것이다. 이때는 삼국이 통일 되고 발해가 세워지며, 日本이 당과 교류에 힘쓰는 등 몹시 다변화 했던 시기로 복식 역시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변모하였다.

백제가 660년에, 고구려가 668년에 각각 멸망하고 신라가 676년 통일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예빈도 사신을 통일신라인으로 보고 있다.

42) 김동욱, (1985) p.53.

그러나 신라는 이미 649년에 唐의 服飾制度를 수용하였고, 651년 일본에 간 신라사신도 당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라인으로 보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 같다.

또 日本使臣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역시 아니라고 생각된다. 日本服飾은 685년 大寶領에 의해 三公服 制度가 당제도에 의거해서 완성⁴³⁾되었으며 烏羽를 삼식했던 古冠制는 648년에 폐지⁴⁴⁾되고 蟬帽로 정했으므로 사신의 관모와는 달랐다. 또한 702년 당에 入朝한 일본사신은 大寶領의 紫色公服規定과 일치한 의복을 입고 있으므로 日本人도 아닌 것이다.

한편 삼국의 의복이 大同小異하였고, 백제의 양적공도 사신 옷이 예빈도 사신 것과 유사하나 제작기와 멸망시기가 너무 멀어 백제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구려는 668년 멸망했으나, 당은 고구려 遺民을 지금의 營州로 이주시키기도하고, 고구려 보장왕으로 하여금 遼東을 다스리게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당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과 함께 고구려 부흥운동을 계속하여 699년 고구려 遺將 大祚榮은 震을 세웠다. 유민들은 고유복을 계속 유지하였으니라 생각되며 국호가 渤海로 바뀐 것이 713년이므로 사신이 震이나 唐 지배지역 유민사절일지도 모르겠다. 또 아프리카시암 궁정 벽화의 2인의 사신을 고구려나 발해 계통으로 본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복식만으로 국적을 추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당시 정세와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할 결과가 이상과 같다.

고구려 고분 벽화가 4~6C경 것으로 그 이후 복식을 근거할 만한 회화자료가 드문 가운데 예빈도 사신벽화는 7C말경이라는 비교적 연대추정이 확실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사신 복식을 통해 당시 의복을 추측하고, 이 사신도 하나만의 자료로는 불충분하겠지만, 차후 발굴되는 새로운 자료들과 더불어 연구가 계속되어 올바른 사실들이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金基雄(1989), 「고구려고분 벽화」, 서울: 서문당.
 金東旭(1979), 「新羅의 服飾」, 新羅文化宣揚.
 _____(1985), 「百濟의 服飾」, 서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김문경(1986), 「당·고구려유민과 신라교편」, 서울: 일신사.
 金元龍 '당 이현묘벽화의 신라사에 대하여', 「考古美術」, 123, 124, 1974.
 _____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의 사절도', 「考古美術」, 129, 130, 1976.
 関斗基(篇)(1983), 「日本の 歴史」, 서울: 지식산업사.
 변린석(1990), 「중국역사의 현장을 가다」, 서울: 두남문화사.
 柳喜卿(1983),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대출판부.
 이만열(1991), 「한국사 연표」, 서울: 역민사.
 崔茂藏(1985), 「고구려·발해문화」, 서울: 집문당.
 한국문화사편찬위원회(편)(1980), 「한국문화사」, 서울: 이대출판부.
 한국사연구회(편)(1987), 「고대한중관계의 연구」, 서울: 삼지원.
 朝鮮學報, 18, 1976.
 진순신(著), 이용찬(역)(1988), 「중국고적 발굴기」, 서울: 문화출판국.
 高槍健自(1976), 「歷世服飾圖說」, 東京: 思文閣.
 北村哲郎(1981), 「日本服飾史」, 東京: 衣生活研究會.
 杉本正年(1984), 「東洋服飾史論攷」, 東京: 文化出版局.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台北: 南天書局.
 王宇清(1983), 「中國服裝史綱」, 台北: 南天書局.
 周錫保(1983),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南天書局.
 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輯委員會(編), (1977),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上, 台北.
 「三國史記」, 「三國遺事」, 「海東釋史」
 「日本書紀」, 「속일본기」,
 「舊唐書」

43) 北村哲郎, (1981) p.29.

44) 「日本書紀」卷第25, 孝德天皇, 大化四年.